

교환학생 보고서

소속전공	신소재 공학부	학 번	201**171	성 명	김동미
주 소		휴대전화		메일주소	
파견국가	독일	파견대학	예나 공과 대학	파견학기	2015년2학기-2016년1학기
소요경비	약 1500만원 (총 1년)				
주거	학교에서 제공해주는 기숙사에서 2학기 동안 거주				
룸메이트	첫 번째 학기에는 Carl Zeiss promanade에서 주거하였습니다. Carl zeiss 기숙사는 최대 3명까지 같이 살며 방은 혼자서 사용하지만 부엌과 화장실은 공용이었습니다. 다음 학기에는 Siegfried Czapski 로 이사를 하였는데 최대 5명까지 같이 살지만 저는 4명과 같이 살았습니다. 독일인들은 공용 장소를 깨끗하게 사용하고 남들에게 피해주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 조용하게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기숙사 내 한국인	기숙사 내 한국인은 같이 지원한 교환학생 친구와 저의 멘토였던 분이 계셨습니다. 대체적으로 마주칠 일은 없지만 생활을 하는데 도움을 많이 주셨습니다.				
파견대학 정보	예나 공대에서는 독일어 교육 과정을 다양하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또한 영어 회화 수업에 참여할 수 있지만 technical english 수업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석사과정 진행중인 학생들이고, 영어를 매우 잘하고 용어가 어렵기 때문에 적응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전공 수업이 대부분으로 영어로 진행되어 어렵기 때문에 영어 공부를 많이 해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파견대학 국제 교류부서	국제 교류부서에 계신 Shaef 씨는 저희가 비슷한 질문을 물으러 가더라도 항상 친절하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영어를 잘하시기 때문에 여러방면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주말 및 여가활동	여가활동으로는 대표적으로는 독일 주위의 유럽 국가를 여행했습니다. 또한 교환 학생을 보냈던 예나는 독일의 작은 도시이지만, 공원에 가서 소풍을 즐기기도 좋습니다. 또한 숨어있는 맛집과 예쁜 장소들이 많기 때문에 주말에 나가 한가로운 오후를 보내기도 좋았습니다.				
멘토 또는 교류도우미	저의 멘토는 한국인 유학생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한국인 멘토가 배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학교에서 오는 학생들은 대부분 한국인이 멘토를 맡아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계좌 여는 것부터 시작해서 비자를 발급하는 것 까지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전공	저는 신소재 공학부입니다. 저희 과에서 배우는 것은 재료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것인데 그중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 영어로 심화과정을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독일은 실험 수업에 있어서도 그 실험에 대한 준비 시험이 60점이 넘지 않으면 실험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교육 제도를 경험하는 것은 저에게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수업 스케줄	수업 스케줄은 유동적이기 때문에 매주 시간표가 업데이트 됩니다. 수업은 많은 날에는 8시간 까지 있었고 매주 달랐습니다. 하지만 사이사이 짧은 연휴가 있어서 그 기간에 여행을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학생할인 관련	저희가 거주하는 튀링겐주 내에서는 학생증만 있으면 트램,기차,버스가 공짜였습니다. 다른 독일내에서는 멘자같은 학생 식당에 가면 학생 할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유럽 여행중에서는 학생 비자가 있으면 박물관이나 어트랙션에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종종 있었습니다.
ISIC카드 활용	독일에서 학생 비자를 발급받고 비자 카드를 들고 다니면 유럽 학생 인증이 되어 학생 할인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따로 발급받지 않았습니다.
영어공부	수업을 영어로 진행하기 때문에 전공 영어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또한 영어 회화수업또한 신청하여 참여 가능합니다.
여행	유럽내는 항공권이 싸기 때문에 다른 유럽 국가로의 여행이 매우 용이합니다. 하지만 예나 내에는 공항이 없기 때문에 매번 베를린을 경유해서 가야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또한 예나는 독일의 중심에 위치하기 때문에 독일내를 여행하는 데 위치적으로 좋은 곳입니다.
교통	예나는 큰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걸어서 다니기 충분할 뿐만 아니라 학생이면 대중교통은 모두 무료이기 때문에 교통은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날씨	독일은 일년 중 몇 달만 따뜻하고 나머지는 쌀쌀하거나 겨울입니다. 햇빛도 잘 들지 않고 대부분이 흐린 날씨입니다.
해외인턴	독일에서 인턴의 기회를 잡으려면 독일어를 매우 잘해야 됩니다. 또한 독일어가 부족하다면 영어를 매우 잘한다면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신	
보완점	이러한 데이터 베이스를 활용해 차후에 교환 학생으로 가는 학생들이 짧은 기간내에 더 많은 정보로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